

出國報告（出國類別：參訪【展覽交流】）

2015 臺韓天然染織交流展 出國報告書



出國人員：臺中市政府文化局藝文推廣科編審

徐佩鈴

臺中市政府文化局葫蘆墩文化中心秘書

陳富滿

臺中市政府文化局葫蘆墩文化中心約聘人員

張惠茹

天染工坊藝術總監

陳景林

派赴國家：韓國

出國期間：104 年 8 月 6 日至 8 月 13 日

報告日期：104 年 11 月 9 日

目錄

摘要.....	01
壹、展覽交流目的.....	03
貳、行程及人員名單.....	04
一、出國人員名單.....	04
二、出國行程.....	04
參、展覽交流過程.....	06
一、展覽及講座.....	06
二、參訪、拜會.....	24
三、效益評估.....	49
肆、心得與建議.....	51

摘要

為將本府積極發展兼具環保、文化、生活、時尚、設計之綠工藝文創產業擴至國際，並延續 2013-2014 年臺中市政府文化局（葫蘆墩文化中心）與韓國(財)羅州天然染色文化財團共同舉辦之「臺韓天然染色交流展」，2015 年活動則在 8 月 7 日-8 月 30 日於韓國天然染色博物館舉行，並由韓國與臺灣兩國染織藝師共同參與，臺灣將以「2015 臺韓天然染織交流展－臺灣經典色」為題，進行天然染色研究成果與生活應用的展出。

臺灣部分共展出 39 組 317 件作品，23 天的展示期間約有 7800 人次紛紛從首爾、大邱、慶州、全羅南道、光州、羅州等地前來參觀，臺灣天然染色作品在韓國的天然染色界與民眾間，皆留下高水準的印象。

除了交流展覽外，並拜會天然染色界的重要人士如韓國重要無形文化財第 115 號染色匠鄭官采藝師，以及徐承龍工坊、金汪植工坊、金大鈞工坊、李敬嬉工坊、沈昌燮工坊、金順子工坊、Ye Som 天然染色服裝設計公司、李珍玉天然染色服裝店，並拜會、潭陽竹藝博物館、光州設計中心、東新大學藝術中心、清道郡柿染聯合服裝公司、大邱市纖維博物館等，對於韓國天然染色產業有更深入的瞭解，也為臺中市政府文化局（葫蘆墩文化中心）即將在 10 月舉辦「2015 臺灣國際天然染織交流展暨座談」、12 月舉辦「2015 臺韓天然染色 50 人展」進行有力的宣傳。





壹、展覽交流目的

(一)有效宣傳臺中市政府文化局(葫蘆墩文化中心)於 2014 年委託天染工坊執行之「臺灣經典色—天然染色的臺灣色彩意象」研究成果為主，包括運用天然的藍靛、茜草、紫膠蟲、福木、石榴皮、五倍子、墨水樹、柿汁等染材，以二次與多次複染技藝來產生色彩擴充的研究成果，並從赤、橙、黃、綠、青、紫、茶褐、灰黑等八色系中各選出 8 個代表色，各色之間有明顯色差，總共有 64 個代表色，並運用這些經典色設計出系列性天然染色產品，呈現臺灣豐富活潑的天然色彩意象。

(二)有效行銷臺灣豐富多元的染織風貌，邀請呂淑瓊、吳汶錡、陳如萍、劉俊卿、鄭佳宜、李鈺翔、黃英明、毛佩華、張瑛玲、廖倫光、林淑莉、尤瑪·達陸等，以及三角湧文化協進會、新埔柿染坊等天然染色團體，邀請其提供其優秀的作品與產品，包括服裝、壁飾、吊飾、首飾、包袋、茶席、文具等美術工藝與生活應用產品，以呈現臺灣染織工藝的多元發展。

(三)在韓國財團法人羅州市天然染色文化財團協助下，參訪韓國各地相關黃土染、墨染、炭染、柿染等工坊及染色工廠，進行技術交流及營運管理。

(四)拜會韓國重要之天然染色界藝師及天然染色自治團體與企業，借鏡經營與運作經驗。

(五)與韓國財團法人羅州市天然染色文化財團（韓國天然染色博物館）洽談「2015 臺灣國際天然染織交流展暨座談」韓國藝師、學者之推薦，以及臺韓博物館與產業未來合作等方案進行討論。

(六)有效宣傳「2015 臺韓天然染色交流展」、「2015 臺灣國際天然染織交流展暨座談」、「2015 臺韓天然染色 50 人展」的訊息。

(七)觀摩韓國相關公私立博物館與工坊營運，以及相關典藏、展場、賣場、教室、進駐工坊、植物園區等館舍設施，俾以提供纖維工藝博物館館未來朝主題館之方向發展。

貳、行程及人員名單

一、出國人員名單

本次出國計畫於有限經費內，由臺中市政府文化局藝文推廣科編審徐佩鈴、葫蘆墩文化中心秘書陳富滿、約聘人員張惠茹、天染工坊藝術總監等 4 人組成。其他自行前往包括為了參展染織藝術家吳汶錡、陳如萍、毛佩華、張瑛玲、廖倫光、尤瑪·達陸等合計 10 人，於 104 年 8 月 6 日至 8 月 13 日共計 8 天赴韓國進行展覽及參訪交流。

二、出國行程

天數	日期	內容	地點
1	8/6 (四)	啟程：臺灣桃園機場、韓國釜山機場、羅州市 佈置：展品開箱、點交展品、布置 2015 臺韓天然染織交流展	桃園機場→釜山機場→羅州→韓國天然染色博物館
2	8/7 (五)	佈置：2015 臺韓天然染織交流展 開幕：2015 臺韓天然染織交流展	韓國天然染色博物館
3	8/8 (六)	座談：臺韓天然染織藝師座談會意見交流 參訪：羅州市民俗文物館、羅州市軒鶴琴歷史建築 講座：臺灣經典色複染的研發經驗 專訪：韓國 Fashion Journal 雜誌專訪 導覽：2015 臺韓天然染織交流展 拜會：韓國無形文化財第 115 號染色匠鄭官采藍染藝師	韓國天然染色博物館
4	8/9 (日)	拜會：徐承龍工坊、金汪植工坊 示範及體驗：韓國黃土染及墨染	羅州
5	8/10 (一)	拜會：財團法人羅州市天然染色文化財團館長李泳奎 參訪：東新大學藝術中心、潭陽竹藝博物館、光州設計中心 拜會：東新大學黃土染李相弼藝師	羅州→潭陽郡→光州

6	8/11 (二)	參觀：清道郡柿染餐廳、清道郡柿染聯合服裝公司、清道郡社區柿染教學 拜會：清道郡金大鈞工坊、李敬禧工坊、연시 工坊	光州→清道郡→ 釜山
7	8/12 (三)	參觀：大邱市西門市場 拜會：大邱金順子工坊、Ye Som 天然染色服裝設計公司、李珍玉天然染色服裝店、大邱市纖維博物館	釜山
8	8/13 (四)	返程：釜山機場、臺灣桃園機場	釜山機場→桃園 機場

參、展覽交流過程

此項「2015 臺韓天然染織交流展」出國展覽計畫由天染工坊策展，展出「臺灣經典色—天然染色的臺灣色彩意象」研究成果，以及國內優秀染織工藝師呂淑瓊、吳汶錡、陳如萍、劉俊卿、鄭佳宜、李鈺翔、黃英明、毛佩華、張瑛玲、廖倫光、林淑莉、尤瑪·達陸等，以及三角湧文化協進會、新埔柿染坊等天然染色團體，提供服裝、壁飾、吊飾、首飾、包袋、茶席、文具等，合計發表臺灣優質美術工藝與生活應用產品 39 組 3174 件。

一、展覽及講座

（一）佈展：

時間：104 年 8 月 6 日晚上 6:00～104 年 8 月 7 日下午 3 點

地點：韓國天然染色博物館

說明：展品於 104 年 8 月 1 日運抵韓國天然染色博物館，出國人員於 8 月 6 日晚間抵達韓國後，徹夜進行展品開箱、定位與佈展工作。







在財團法人羅州市天然染色財團工作人員及韓國天然染色指導師協會會員協助下，於 8 月 7 日下午 3 點前完成佈置。

（二）開幕式：

時間：104 年 8 月 4 日下午 5:00

地點：韓國天然染色博物館

展覽並於 104 年 8 月 7 日下午 5 時舉辦，由羅州市長夫人偕大韓民國重要無形文化財第 115 號染色匠鄭官采、羅州市觀光課長李民哲、韓國各地天然染色指導師會員，與本局徐佩鈴編審及臺灣陳景林、吳汶錡、陳如萍、毛佩華、張瑛玲、廖倫光、尤瑪·達陸等 7 位染織藝師共同開幕。



羅州市長夫人開幕致詞



臺中市政府文化局藝文推廣科徐編審佩鈴介紹臺灣染織藝術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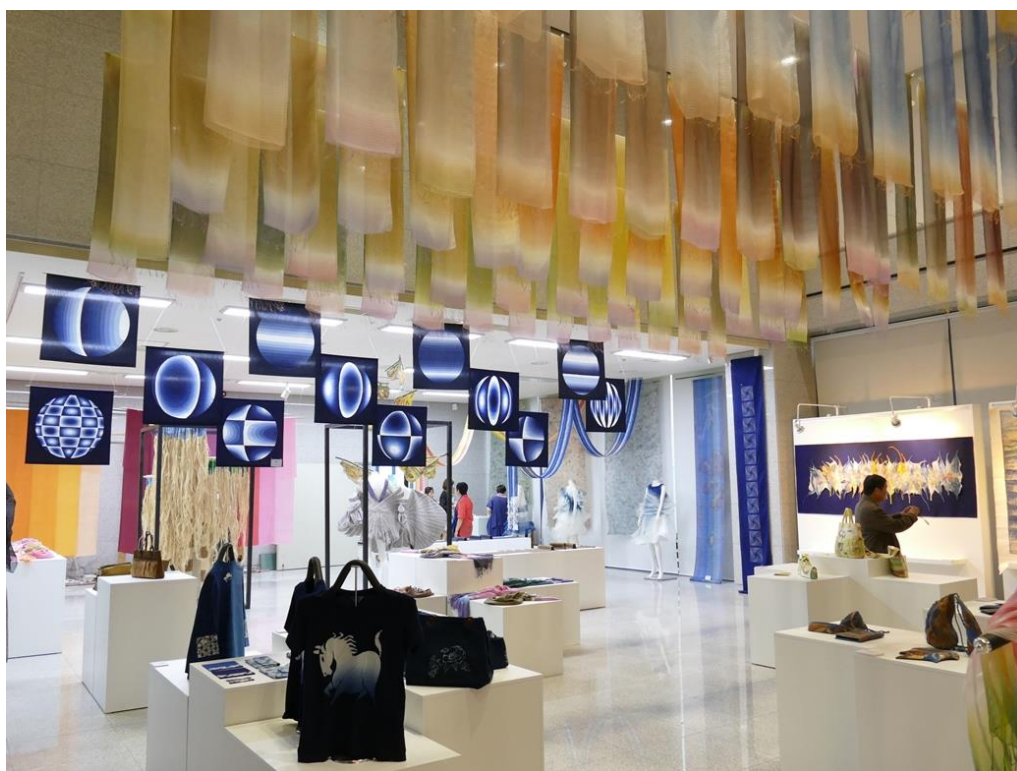
與會貴賓共同剪綵



羅州市長夫人參觀展覽



來自首爾及韓國各地的天然染色界藝師 70 餘位出席開幕式



展場



開幕後舉辦戶外茶會，羅州市議長洪哲植特地前來致意

(三) 臺韓藝師舉辦交流座談會

時間：104 年 8 月 8 日上午 10:00

地點：韓國天然染色博物館

內容：由韓國天然染色指導師協會會長朴正元、首爾、全羅南道、濟州特別自治道、慶尚北道等各地協會協力長金汪植、南惠仁、金順子等人與臺灣藝師針對兩國天然染色發展，進行意見交流。



(四) 韓國新聞媒體採訪

時間：104 年 8 月 8 日下午 2:00

地點：韓國天然染色博物館

內容：由臺中市政府文化局藝文推廣科徐編審佩鈴接受韓國世界紡織報採訪，介紹葫蘆墩文化中心於 2014 年委託天染工坊執行之「臺灣經典色—天然染色的臺灣色彩意象」之研究成果內容及未來籌設纖維工藝博物館的構想。



Life
천연염색 특집
2015년 9월 9일 수요일
5

한국·대만 어우러져 천연염색 수준 드높였다

2015 한국-대만 천연염색 교류전 개최, 7천명 방문 ... 수준 높은 작품상에 감탄사

의 천연염색 대표 주자들이 만나 결의 문화 공유와 더불어 수준 높은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를 천연염색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게 되었다.

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강인규) 중시국립 문화국 후문문화센터(文化局附屬文化中心)가 공동 주관·대만 천연염색교류원이 양국 정상급 천연염색 작가들이 참가한 8월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한류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대 천연염색교류원 개막식(후문문화센터 전무인 비서(陳容후이비서(陳容후이) 씨, 대학 교수, 각급과 세칭치민주연합 신장문화원, 나주시의회 총원식 의장, 나주시개발실, 장성, 2016 세계전환경(유영관 사무국장)을 비롯해, 한국(사립) 박정환 회장, 김영남 사무(천연염색문화재단) 김왕식, 장종(사 등 천연염색 관계자 100여명)를 비롯해.

해를 맞은 한국-대만 천연염색교류원과 대만에서 변경이 가면서 해 오고 있다. 2013년에는 대만(를 통해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2014년에는 대만 타이베이 후

2015 한국-대만 천연염색교류전에 참가한 양국의 작가들

후문문화센터에서 한국 작가 70여명이 대만을 방문한 가운데 대만 작가와 함께 천연염색교류전을 개최한 바 있다.

천진민(陳真民), 우원지(吳源志), 천부평(陳步平), 료문광(廖文光), 유마·다루(尤瑪·達陸), 장인영(張仁英), 마오페이화(毛佩華) 등 대만 작가들은 한국천연염색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한국천연염색작가도사 협회 소속 회원은 2층에서 다양한 색상 및 다채로운 염색기법이 총망라된 작품을 각각 전시해 참관객들로부터 호평받았다.

2015 한국-대만 천연염색교류전은 색상·제도·명도를 다양하게 표현한 수많은 염색한, 바둑·벽면·천장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한 선진 전시 기법, 고난이도

의 천연염색 기법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연일 전국 각지에서 천연염색 종사자들뿐 아니라 섬유, 미술 관계자와 일반인 등 약 7천명이 전시장을 내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만 측은 타이베이정부 문화국(후문문화센터)이 2014년 천연염색공방에 위탁해서 연구한 대만 고전색-천연염색의 대만체와 정화라는 결과물을 포함한 원주민들의 염색

공예, 복원작품 등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했다.

천연(靛藍), 옥두서니(鹿草), 락(藥草), 부나(木), 석류피(石榴皮), 오매자(五倍子), 캄파치나무(墨木), 감즙(柿汁) 등의 열매를 이용한 복합염색을 포함해 고난이도 기술로 대만 고전색을 표현한 현대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빨간색, 주황색, 노랑색, 초록색, 청색, 보라색, 다색, 검회색 등 8가지 계열 중 각 계열을 대표하는 한 가지 색으로 색깔과 색깔 사이에 명확한 색감 차이의 총 64개의 대표 색을 응용해 천연염색 작품을 디자인해 대만의 풍부하고 활발한 천연색감을 보여줬다.

대만 작품은 풍부한 색과 예술성이 높은 염색 기법에 대한 호평 속에 산업화 측면은 다소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2015 한국-대만 천연염색교류전을 관람하고 있는 학생들, 한국-대만 천연염색교류전을 관람하고 있는 일반인들, 한국-대만 천연염색교류원 개막식에 참석한 양국 인사들, 한국-대만 천연염색교류원 전시장 전경

위약했던 반면 한국 작품은 장르는 다양했지만 상품성이 다소 강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과 대만의 천연염색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을 찾은 안후정씨는 "대만을 가지 않고도 이렇게 수준 높은 작품들을 나누어서 볼 수 있어 감사하다"며 "일반인들한테는 천연염색의 아름다움과 표현 가능성을 한껏 느끼게 해줬고 전문가들한테는 공부와 함께 큰 자극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015 한국-대만 천연염색교류전은 팔았던 기간임에도 대만의 영향을 받은 한국 작품은 물론 한국과 유사한 염색기법을 나타낸 대만 작품도 있는 등 양국의 천연염색 관계자들에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배우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전시장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전시장을 찾았다. 이는 교류전이 천연염색 종사자들에 국한된 단순 행사가 아니라 양국의 홍보와 민간 교류, 염색문화 발전에 의미 있는 행사로 향후 여타 섬유 패션업계에도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의 허복국 국장은 "2015 한국-대만 천연염색교류전에 참가한 대만의 관계자들과 일반, 중국 등을 추가로 참여시켜 교류전을 지속해 나가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교류전의 확대 외에도 천연염색의 국제표준 개발에 협력하고, 양국 관계자들이 국제표준을 제정해 나가는데 뜻을 같이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나주시천연염색 기자 ck2@naver.com

인터뷰 쉬페이링 타이중시정부 문화국 편집

“양국 천연염색 차이점 보완에 도움, 천연염색 상호 발전 계기 마련”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강인규)과 대만 타이중시정부 문화국(臺中市政府文化局) 후루툰문화센터가 공동 주관한 2015 한국-대만 천연염색교류전이 양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천연염색 작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8월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8월 7일 진행된 한-대 천연염색교류전 개막식에 참석한 대만 타이중시정부 문화국 쉬페이링 편집(徐佩鈴 編審)을 만나 한-대 천연염색교류전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2015 한국-대만 천연염색교류전 참여를 위한 한국 방문은 성과가 컸습니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의 연구실적과 산업화 성과가 대단했고 한국이 천연염색 발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학계, 작가들이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타이중시정부 문화국 쉬페이링 편집은 “한국 천연염색이 예술작품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대만에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문



을 열었다. 특히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직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작가들과 함께 전시회를 추진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했다.

쉬 편집은 “대만의 천연염색 작품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정도로 예술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실용적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고 자평했다.

이처럼 양국의 천연염색은 다소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이번 교류전을 통해 상호 보완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도 피력했다.

“타이중시에서는 현재 타이중섬유박물관(台中纖維工藝博物館)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유물의 소장, 교육 뿐만 아니라 섬유공예의 확산과 문화창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쉬페이링 편집은 “타이중섬유박물관이 한국 천연염색박물관처럼 대만을 대표하는 천연염색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천연염색 관계자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면서 “대만과 한국의 천연염색 교류전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윤성민·동옥분 기자 okf21@naver.com

인터뷰 천푸만 타이중시정부 문화국 후루툰문화센터 비서

“교류전 참여 큰 행운, 한국 천연염색산업 발전상에 감동”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강인규)과 대만 타이중시정부 문화국 후루툰문화센터(臺中市政府文化局葫蘆墩文化中心)가 공동 주관한 2015 한국-대만 천연염색교류전이 양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천연염색 작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8월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8월 7일 진행된 한-대 천연염색교류전 개막식에 참석한 대만 타이중시정부 문화국 후루툰문화센터 천푸만 비서(陳富滿 秘書)를 만나 한-대 천연염색교류전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녀는 “타이중시 정부 문화국 쉬페이링 편집(徐佩鈴 編審), 장후이루(張惠茹) 씨, 그리고 7명의 천연염색 작가와 함께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개최된 2015 한국·대만 천연염색교류



전에 참여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행운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천푸만 비서는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과 타이중시정부 문화국 후루툰문화센터 직원이 상호 노력을 통해 대만의 천연염색 작품의 매력을 한국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한국의 작가들과

관람객들이 대만의 천연염색 작품에 관심을 가져줘 매우 감사하다”며 고마움도 전했다.

한국 천연염색산업의 발전상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그녀는 “천연염색교류전 개최가 양국 간 상호 교류의 장인 동시에 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이 전시회가 양국 천연염색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주=윤성민·동옥분 기자 okf21@naver.com

（五）講座

時間：104 年 8 月 8 日下午 2:30-4:00

地點：韓國天然染色博物館

內容：由天染工坊陳景林老師講解「臺灣經典色—天然染色的臺灣色彩意象」之過程



(六) 展場導覽:

時間：104 年 10 月 3 日下午 4:30-5:30

地點：韓國天然染色博物館

由臺灣天然染色工藝家陳景林老師親自向在場學員介紹本次作品特色。



(七) 黃土染與墨染體驗

時間：104 年 8 月 9 日下午 2:00-4:00

地點：韓國天然染色博物館及園區

內容：韓國金汪植老師現場講授黃土染與墨染的原理課程與現場操作





(八) 拜會韓國天然染色博物館李泳奎館長

時間：104 年 8 月 10 日上午 0900-10:00

地點：韓國天然染色博物館

內容：韓國天然染色博物館由羅州市政府派前任文化局長李泳奎擔任館長



(九) 參觀韓國天然染色藍染精煉工廠與染線工廠

時間：104 年 8 月 10 日上午 10:00-10:30

地點：韓國天然染色博物館園區

內容：韓國天然染色博物館園區設有 2 個精煉工廠與染線工廠，目前已有兩間公司進駐，其中染線工廠由「Vision Land 股份有限公司」進駐，該公司 2014 年衣服的布料和成衣的營業額就達到 2 億美金，另一家染色設施部分，染色業者將在補足絲線、布料染色等產業性染色所需的設備後於 2015 年 10 月開始正式進場生產藍染線材。





二、 參訪、拜會

此行除在韓國天然染色博物館進行展覽與交流活動外，並拜會韓國天然染色界的重要人士如韓國重要無形文化財第 115 號染色匠鄭官采藝師，以及徐承龍工坊、金汪植工坊、金大鈞工坊、李敬嬉工坊、沈昌燮工坊、金順子工坊、Ye Som 天然染色服裝設計公司、李珍玉天然染色服裝店，並拜會、潭陽竹藝博物館、光州設計中心、東新大學藝術中心、清道郡柿染聯合服裝公司、大邱市纖維博物館等，對未來纖維工藝博物館織染工藝的發展有極大啟發。

（一） 羅州市軒鶴琴

時間：104 年 8 月 8 日下午 1:00-1:30

地點：韓國羅州市

內容：軒鶴琴為羅州市古蹟，以前為邑長居住之處，目前已提供當成民宿，並且準備有黃土染寢具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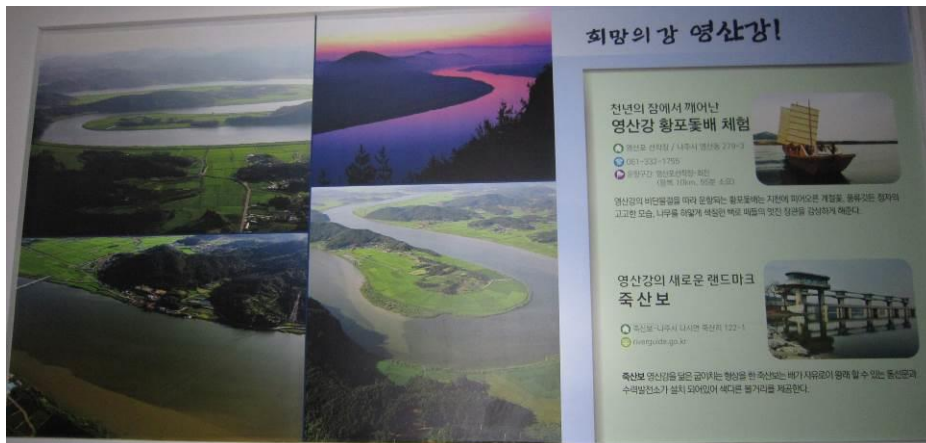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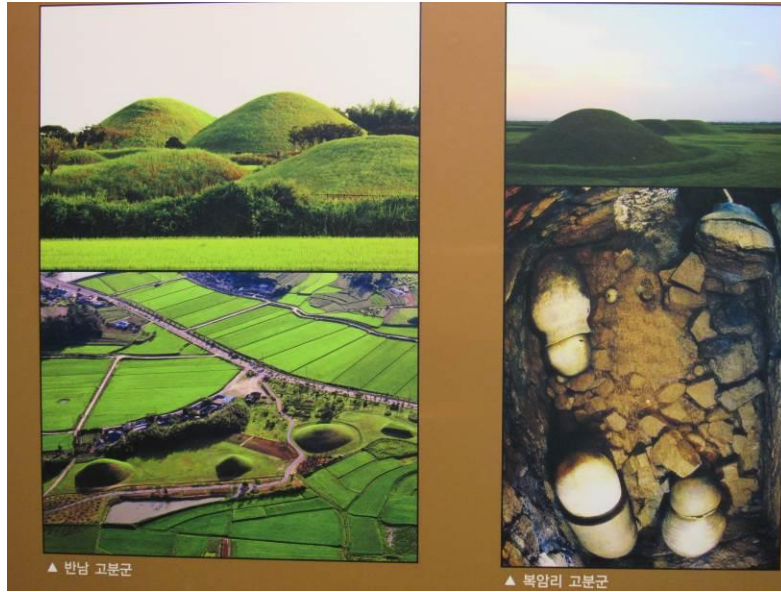
（二） 羅州市民俗文物館

時間：104 年 8 月 8 日下午 1:00-1:30

地點：韓國羅州市

內容：羅州市民俗文物館為介紹韓國羅州市近千年（從百濟、新羅、朝鮮時代）的城市發展與地理環境的小型博物館，佔地連園區約 200 坪、館舍 100 坪。陳設內容除了介紹該市因為有榮山江水域，在古時為全羅南部地區的中心，還有 5 世紀時期由倭系在此大量建立的前方後圓墳的古墓群，如伏岩里古墓群、潘南面古墓群、大安里古墓群、德山里古墓群、新村里古墓群等等。另外，朝鮮王朝時代的羅州邑城，以及殖民地時代的榮山浦燈塔、東洋拓殖株式會社的建築物、本町街等仍然存在。因拍攝電視劇《朱蒙》而建造的外景拍攝場地，也位處於羅州市，該館除為當地小學提供課外教學外。對於外地人也極具有吸引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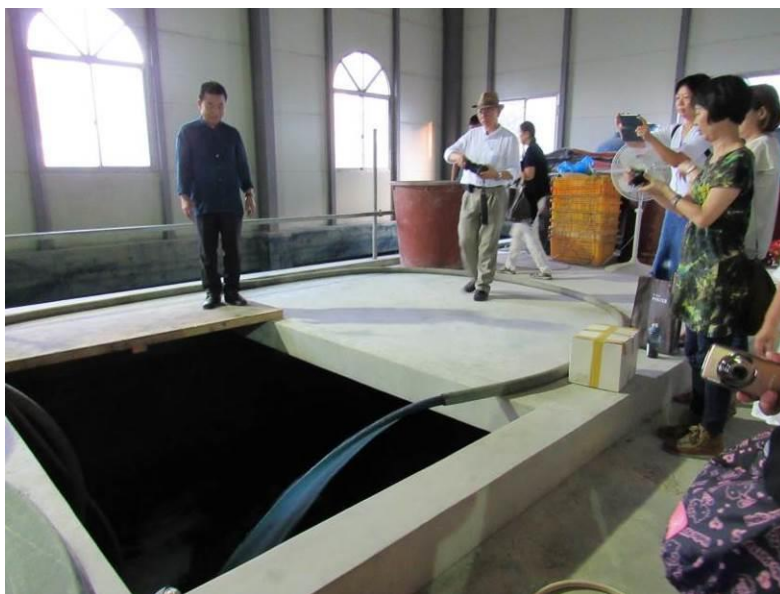




（三） 鄭官采工坊

時間：104 年 8 月 8 日晚上 6:00-7:30

內容：2001 年被指定為韓國無形文化財第 115 號「染色匠」鄭官采藝師，原本在國中擔任美術老師，2001 年起花費數年復原父親染色技藝，而成為羅州藍染技能保存者，政府除每月補助約新台幣 6 萬元，也補助其經費建造展示館，此外還擁有大型染色製靛工作室、小木屋、以及佔地很廣的蓼藍田，工坊佔地約 2 公頃，一年約可生產 3 噸藍靛。



製靛工廠



展示館

（四） 徐承龍工坊

時間：104 年 8 月 9 日上午 10:00-10:30

內容：徐承龍工坊佔地為 2 公頃，在 2013 年曾拜訪過，當時有 2 棟建築物，一棟為展示兼工作室，另一棟為染色教室，還有蓼藍田、曬場等，今年參訪時又增加了 1 棟餐廳，工坊原本為夫妻合作的兩人工坊，今年因為加入兒子與媳婦，成為 4 人的家庭工坊。



展售室兼工作室，產品以服飾、寢具、傢飾為主



鐵皮屋搭的染色教室



2014-2015 年 1 年內新建的餐廳



（五） 金汪植工坊

時間：104 年 8 月 9 日上午 11:00-12:30

內容：金汪植工坊，是夫妻兩人的天然染色工坊，工坊佔地約 300 坪大，有展售室、染色工作室等，該工坊曾幫總統夫人染製作高級訂製服或製作外賓紀念品，女主人陶藝家讓染色作品帶有陶藝的味道非常特別，展售室布置的非常雅緻，產品以黃土染、蓼藍、各種植物染之服裝、包袋、文具以及桌飾、壁掛、窗簾等。



展售室



產品以服裝、包袋、文具以及桌飾、壁掛、窗簾為主



染色工作室

（六） 東新大學藝術中心

日期：104 年 8 月 10 日

內容：東新大學是羅州市一所私立綜合大學，藝術中心由染色藝術家李相弼老師主持，除了定期展覽外，並且蒐羅有韓國近代書畫、2000 多台各式相機，李相弼老師也特別簡介從事天然染色的歷程。



（七） 潭陽竹藝博物館

日期：104 年 8 月 10 日

內容：全羅南道潭陽郡是韓國唯一竹產地，因此 1998 年設立一棟 2 層樓具有保存、展示、販賣、體驗竹製品等綜合機能的竹藝博物館，是，除了展示世界竹子的生態、摘種、以及韓國從傳統傳統農業社會至今都會生活裡的各式竹製品、生產技術、以及無形文化財製作工藝品。每年 5 月更配合潭陽竹子節，舉辦全國竹製品競技大賽，吸引竹藝專家共同交換分享竹製品生產的相關技術資訊。潭陽郡守崔亨植曾於 2014 年來台灣邀請竹藝各界專家，參加 2015 韓國潭陽世界竹會論壇暨竹子博覽會，今年適逢韓國中東呼吸症候群（MERS）疫情擴大，所以潭陽世界竹會延至 9 月舉行





竹炭紡織的韓服寢具

(八) 光州設計中心

日期：104 年 8 月 10 日

內容：韓國近十幾年來積極邁入國際舞臺，光州市政府從 1985 年起每二年邀請世界各國工藝家、設計師，舉辦光州國際雙年展(Gwangju ACE Fair)，包含視覺、電影、3C、動漫等文化創意產展示會，並已取得國際展會認證（UFI），除了向全世界表示有志成為文化大國領導亞洲人進入國際藝術社會之雄心，隸屬於光州市政府的光州設計中心，則是光州國際雙年展的策畫單位之一，有具有展覽、設計研究室、體驗區等。





拜會光州設計中心企業支援組강승이組長接待，洽談
未來合作的可能



(九) 清道郡柿染聯合服裝商場

日期：104 年 8 月 11 日

內容：清道郡本為韓國重要的柿餅產地，在韓國(財)羅州天然染色文化財團協助下，利用廢棄的柿子落果榨成之生柿汁或發酵柿汁可染製堅牢度高之柿染產品後，成為韓國的柿染重鎮，郡內擁有 60 多家工坊生產各類柿染布，並共同以행복한감(幸福柿子)為品牌，提供韓國相關飯店、服飾、寢具等產業。為刺激產業，地方政府更補助經費建設聯合服裝商場，提供給郡內十個優質柿染工坊，展售服裝、包袋、帽子、寢具等。





清道郡柿染聯合服裝商場代表이홍렬出面接待



행복한감(幸福柿子)

(十) 清道郡柿染社區教學

日期：104 年 8 月 11 日

內容：賣場後面有一間廢棄的小學，一半當成清道郡柿染聯合商場的服裝製作場地，包括打版，裁縫等，另一半則是社區染色講習，參加人數非常踴躍。



（十一） 清道郡 zelkova 工坊

日期：104 年 8 月 11 日

內容：負責人為金大鈞，年輕時曾於日本染色工廠上班，後來與太太兩人一起投入天然染色產業，目前約有 15 名員工的小型工坊，專業生產飯店、服飾、寢具等產業所需之柿染、墨染等布料，自己也產包袋、服裝等。也曾在 2008 年協辦大邱市政府主辦 ISEND 國際天然染色論壇。



地下室維持在 15°C 存放 1-3 年的發酵柿汁



染色技法多元，例如使用灑鹽防染產生特殊效果

（十二） 李敬嬉工坊

日期：104 年 8 月 11 日

內容：李敬嬉工坊佔地約 300 坪，自宅兼工作室，以教學、創作、生產供應為主，由李敬嬉老師天然染色自由工作者，沒有加入清道郡天然染色協力組織。



（十三） 연시工坊

日期：104 年 8 月 11 日

內容：연시工坊女主人雖然天然染色學習經驗較淺，但在丈夫(從事建築業的沈昌燮先生)的大力支援下，建立了號稱韓國最新、最氣派的天然染色工坊，就讀大學的女兒未來也將協力經營。



大邱西門市場

日期：104 年 8 月 12 日

內容：西門市場是韓國主要的布料供應市場，如生絲布、蠶絲布、苧麻布、毛織布、線材、染料、裝飾配件等，加工好之圍巾、手帕、桌墊，提供給天然染色業者許多材料來源，同時也是韓服面料及花嫁用品的主要集散地，此外更集結有 200 多攤的天然染色服裝攤位。



布料供應市場



有 200 多家天然染色服裝攤位



韓服面料及花嫁用品

(十四) 大邱金順子工坊

日期：104 年 8 月 12 日

內容：金順子女士為大邱地區天然染色協力組織會長，負責大邱市相關服裝設計產業、天然染色產業指導師等聯繫合作，也在自宅開

設工坊，有工作室、展售區，也經常與服裝設計師구정일赴中國推展韓國天然染色產品。



(十五) Ye Som 天然染色服裝設計公司

日期：104 年 8 月 12 日

內容：由金順子女士推薦前往參觀 Ye Som 天然染色服裝設計公司，公司負責人為專業服裝設計師，經常發表相關服裝秀，他也會使用拼布作法設計包袋、鞋靴、服裝。



(十六) 大邱李珍玉天然染色服飾店

日期：104 年 8 月 12 日

內容：大邱市為韓國的紡織大城，並供應世界各國所需，原本從事服裝設計的李珍玉從 2001 年起跟大邱自然染博物館金芝希館長學習天然染色後，即積極運用柿澀染投入成衣產業，並經常參加世界各地的成衣博覽會或國際纖維博覽會，透過時裝秀讓消費者認識天然染色的獨特性。2013 年佔地 500 坪規模的「李珍玉 Gallery」在大邱開幕，並在永川市開設了一天工作八小時能生產 500 碼~1000 碼天然染色布料的工廠。成功構築了一個從布料染色、後製加工一路

到獨立賣店的統一生產流程。現在旗下員工約 30 人（部分使用身障人士協助製版、裁縫），每年生產、販賣 5000 件的天然染色服飾。





(十七) 大邱纖維博物館

日期：104 年 8 月 12 日

內容：大邱市政府以韓幣 50 億元建造韓國境內唯一的纖維綜合博物館，藉以展現韓國與國際纖維、時裝產業的歷史，也蒐藏各時代的服裝、紡織機、文獻等，在 1-4 樓樓廳中設有時裝館、特展區、兒童體驗室、工業館、纖維企畫室、未來館、研究室、圓形劇場等，並外包有化妝品賣店、餐飲店等。





三、 效益評估

(一) 韓國工藝師與參訪民眾的迴響，達到了全國性的影響。

在 23 天的交流展展示期間，參訪人數有 7800 人次，對於位居鄉下且交通不便之韓國天然染色博物館而言，參觀民眾的比例可說是相當高。

由於 2013 年台韓天然染色交流展引起韓國很大的迴響，本次展覽參訪者不只羅州當地居民，還吸引包含韓國各地天然染色界的代表性人士 60 多位會員，甚至遠道開了 7 小時車程來參加開幕及觀賞臺灣的天然染色作品，達到了全國性的影響。

台灣天然染色藝師對於作品的題材選擇、染織技法、獨創性與商品價值等各方面，都獲得極高評價。

對於性急的韓國人而言，慢工出細活的展品，不僅獨具有開創性，連實用性高的包袋、服裝等生活用品也獲得民眾一致好評。

因此 2015 年台韓天然染色交流展，在韓國的天然染色專家與一般民眾再度留下高水準的印象。

(二) 促進台韓國兩國天然染色藝師進行實質的交流，達到雙贏局面

活動期間，韓國(財)羅州天然染色文化財團特別規劃辦理多項活動，招募全國各地的天然染色指導師協會，辦理台韓兩國藝師展覽等，所以在佈展期間，有 20 多位韓國藝師徹夜協助台灣部分的佈展，而座談會也彼此交換名片與意見，建立未來互訪或互學的良好基礎。

此外，韓國(財)羅州天然染色文化財團並協助安排參訪羅州市民俗文物館、羅州市軒鶴琴歷史建築、大邱市西門市場等 3 個相關地方文化館或市集，以及拜會東新大學藝術中心、潭陽竹藝博物館、光州設計中心、大邱市纖維博物館、韓國無形文化財第 115 號染色匠鄭官采藍染藝師、徐承龍工坊、金汪植工坊、清道郡柿染聯合服裝公司、清道郡社區柿染教學、清道郡金大鈞工坊、李敬嬉工坊、연시工坊、大邱金順子工坊、Ye Som 天然染色服裝設計公司、李珍玉天然染色服裝店等 15 個單位及工坊，且安排所有成員體驗韓國特有之黃土染及墨染技藝，對於一同赴

肆、心得與建議

一、心得

韓國與臺灣飛行航距約 1-2 小時並不遙遠，天然染色界原本鮮少有互動，但在臺中市政府文化局（葫蘆墩文化中心）持續韓國(財)羅州天然染色文化財團合作下，於 2013-2015 年期間，一年韓國、一年台灣，舉辦「台韓天然染色交流展」後，快速刺激兩國藝師交流，並促進產業文化觀念的交流。

臺灣擁有多樣化的染料萃取技術、高飽和度的天然色澤、多元化的編織技法、獨創性的作品設計與高價值的商品等，但產業基礎仍然薄弱，天然染色界多以教學或創作為主，少數投入染坊營運，因此永續經營困難。

而韓國天然染色界從 2006 年以後，(財)羅州天然染色文化財團以短短 9 年的時間，從人才的養成、輔導工坊創業、建立資格認證制度（達 600 多人）、建立全國化的自治團體、引進大型染色工廠，逐步擴大落實建立天然染色上中下游之產業鏈，並同時延伸發展至醫療、弱勢服務、全民教育等經驗。並分別於全羅南道羅州市、濟州特別自治道、慶尚北道永川市、慶尚北道、清道郡設立天然染色自治體，因此韓國天然染色產業發展良好，商機很多，至今仍然有很多人願意投入此行業，甚至如鄭官采、徐承龍、연시工坊、李珍玉、洪路加等天然染色工坊，已開始由第二代共同參與。



鄭官采父子



李珍玉母女

因此台韓天然染色交流展持續的舉辦，將提供兩國染色專家與民眾互相觀摩學習的機會，本活動的舉辦不僅產生良好的觀摩交流機會，並產生互相提升的積極作用。

二、 建議

(一)加強與韓國天然染色界之交流

2013 年在韓國舉辦的「臺韓天然染色交流展」開啟了臺韓兩國天然染色交流與合作的新頁、2014 在台灣舉辦的交流展，共有 84 位韓國作者參展，則是樹立台灣編織文創史上最多的韓國參展者，而「2015 臺韓天然染色交流展」，除展現台灣多樣化的編織風貌，韓國天然染色產業的極積與雄心更刺激了台灣的藝師思考如何永續經營。

臺中市政府文化局（葫蘆墩文化中心）持續與韓國(財)羅州天然染色文化財團合作，將於 104 年 12 月 23 日～105 年 1 月 31 日在臺中市政府文化局（葫蘆墩文化中心）舉辦「相逢與緣分~臺韓 50 人天然染色交流展」，30 位韓國藝師、20 位台灣藝師將接辦延續兩國天然染色界之交流。

(二)借鏡（財）羅州市天然染色文化財團營運的經驗，作為纖維工藝博物館未來營運之參考

財團法人羅州市天然染色文化財團從 2006 年開始營運韓國天然染色博物館，擁有不到 7 位人力之財團，卻能整合文化、勞動、農漁業等資源，透過全羅南道羅州市、濟州特別自治道、慶尚北道永川市、慶尚北道、清道郡自治團體，。

因此韓國天然染色雖為傳統文化，但 9 年來在羅州市天然染色文化財團努力下，正朝產業化的方向努力，且目前在已有大幅進展。

台中市政府文化局正籌建纖維工藝博物館之際，建議參考（財）羅州市天然染色文化財團之經驗。